

## 인문학 기반 예비대학 모델 연구: P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백상미<sup>1</sup>, 정선호<sup>2\*</sup>

<sup>1</sup>평택대학교 국제물류대학 경영학과 부교수, <sup>2</sup>평택대학교 IT공과대학 융합소프트웨어학과 부교수

### A Study on the Humanities-based Preliminary University Model : Focused on the P University

Sangmi Baik<sup>1</sup>, Seonho Jeong<sup>2\*</sup>

<sup>1</sup>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International Logistics,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Pyeongtaek University

<sup>2</sup>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IT Engineering, Dept. of Convergence Software, Pyeongtae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인문학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해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평가하는 플랫폼 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P 대학의 특성에 맞는 예비대학을 설계하기 위하여 전문가 인터뷰와 재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예비대학의 모델을 제안하였다. 전문가 대상 인터뷰 결과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예비대학 모델 구축 및 인문학적 사고에 기반한 인재 양성 교육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재학생 대상 설문 결과에서는 인문학 기반의 예비대학 운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P 대학에 적합한 인문학 기반 예비대학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예비대학 모델 운영을 통해 참여 학생들이 대학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문학적 사고가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후속 연구에서는 플랫폼 기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예비대학, 예비대학 모델, 인재 양성, 인문학적 사고, 온라인 플랫폼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sign a humanities model for preliminary universities using an online platform to develop and expand humanities thinking of preliminary university students. P University Expert Focus Group Interview and student surveys are conducted, an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 preliminary university model suitable for the humanities field is proposed. Expert FGI suggested the necessity of human resources education to build an online platform-based preliminary university model and improve humanities capabilities. As a result of the student survey, it was found that a majority of the respondents had high interest in humanities and recognized the need for a humanities preliminary university. This study proposes a humanities-based preliminary university model that enables interactive communication in virtual space using the cross-platform Photo Server.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contributes to strengthening the humanities capabilities of preliminary university students by presenting an online platform preliminary university model that can respond to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Since this study has a limitation in that it does not present examples of preliminary universities,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educational effect of platform-based preliminary university management in the future.

**Key Words** : Preliminary University, Preliminary University Model, Training Talent, Humanistic Thinking, Online Platform

\*Corresponding Author : Seonho Jeong(shjeong@ptu.ac.kr)

## 1. 서론

4차 산업혁명기의 흐름 속에서 코로나19 사태는 대학 교육에 있어 온라인 영향력을 확장시켰다. 그러나 콘텐츠의 생산과 강의 방식이 학교 단위 혹은 강의를 개인의 역량에 전적으로 의존함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1]. 또한, 학생들에게 제공된 교육 콘텐츠는 그 내용과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비대면 상황에서 이뤄진 학생의 교육성과 관리도 전혀 체계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못했다[2]. 현 온라인 교육의 문제점은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콘텐츠의 생산자 - 교육 공급자 - 교육 수용자가 연계되어 작동되는 통합적 플랫폼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인문학 교육과 인성교육의 사회적 요구의 증가에 따라 온라인 교육방식의 중요성이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신입생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교육의 시기 및 내용을 어느 지점에 두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교육 콘텐츠의 생산과 제공 방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예비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교육 콘텐츠의 생산 방식과 제공 방식에 집중하여, 콘텐츠의 생산자 - 교육 공급자(강의자) - 교육 수용자(학생)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예비대학 인문학 교육 온라인 플랫폼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모델을 디자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핵심적으로 고려하고 반영함으로써 본 연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확보하고자 한다. 첫째, 온라인 중심 교육으로 전환되는 시대적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둘째, 인문학 교육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예비 신입생의 인문학 교육과 인성교육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의자와 학생 외에 지역별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콘텐츠 생산자 혹은 교육자로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어야 한다.

대학에서 입학 시기는 신입생들과 공동체 의식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신입생 입장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의 진학은 인생에 있어 커다란 변화의 시기이며, 적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대학 입학 후 대학생활과 학업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3].

대표적으로 연세대는 2021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

로 학사지도, 기초전공 특강(미적분 및 기초물리 등), 인문학 특강 등의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조선행대는 2021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초수학, 기초물리 등 전공 관련 특강과 기초글쓰기, 기초영어 등 교양 관련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대학들이 예비대학을 실시하는 이유는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및 준비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4]. 즉, 대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대학은 신입생들이 스스로 대학에서 학업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예비대학을 통해 신입생들에게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을 체험하는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적극적인 대학생활에 대한 동기를 부여가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문학적 사고를 개발·확장하기 위한 예비대학 플랫폼을 설계하여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축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인문학 및 온라인 교육, 교육 플랫폼 연구, 예비대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둘째, 예비대학 인문학 플랫폼 설계를 위한 전문가 포커스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과 재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통해 예비대학 인문학 플랫폼 구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인문학 교육 연구

대학의 인문학 교육은 대부분 교양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양교육에서의 인문학은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인재상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역할 또한 수행한다[5]. 기술혁신 및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는 인문학에 기반을 둔 교양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6],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의 확대는 학습 효율성 저하, 대학 생활 및 인간관계 형성 장애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7] 자기 주도적 학습역량 및 사회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문학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대학 교양교육에서 인문학 교육 관련 대표적 연구를 살펴보면, 홍병선[5]은 대학의 인문학 교육 현황을 분석

함으로써 인문학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인문학의 중요성 인식, 만족도, 교수자 평가 및 개선사항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인문학 교육이 대학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대학에 있어 중요한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김무영·김민영[8]은 A 대학의 사례를 통해 교양교육에서 인문학 교육의 중요성,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수업 효과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및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대학생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문학 교육이 대학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 교양 교육과정 만족도 및 관련 요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문학 교육 만족도가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강좌 구성이 미치는 영향력이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수업 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문학 교육이 대학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대학에서는 예비대학 인문학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환경적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방식 및 교육내용에 있어서의 변화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 대학들이 온라인 예비대학을 운영함으로써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이는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인문학 교육 콘텐츠를 생산·제공함으로써 예비대학의 교육적 질을 높이고자 한다.

## 2.2 예비대학에 관한 연구

최근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평가의 영향으로 재학생 학업 유지뿐만 아니라 신입생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신입생 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예비대학에 관한 연구는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대학 프로그램 설계 및 예비대학 프로그램 운영 사례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현재[9]는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단위를 대학 차원과 학과 차원으로 구분하여 대학 차원에서는 대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인성과 인문학 지식, 학과 차원에서는 전공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전공기초교육으로 구성하였다. 2주간에 걸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신입생이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 주도 프로그램에서 인성특강, 청춘의 심리학 등 인

문학 관련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해당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의 경우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대학 및 학과가 존재하기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신희선 등[10]은 미국 대학과 국내 대학의 오리엔테이션 사례를 통해 PBL방법을 적용한 리더십, 학습관리, 인문교양의 세 개 모듈을 중심으로 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해당 연구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육과정은 기존의 학교 당국이나 총학생회가 마련한 수동적인 모델이 아닌 학생과 학교 본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고, PBL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교육적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방법에 있어 프로그램 사례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연구 결과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신희선 [11]은 숙명여대 예비대학 모델 운영사례를 설문조사와 FGI 분석을 토대로 예비대학의 중요성과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숙명여대 예비대학 운영은 신입생들에게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게 하였고, 대학생할 적응 및 자기 주도적 태도를 강화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예비대학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신입생의 대학생활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신입생의 요구 및 기대사항을 파악하여 대학의 교육목적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모델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손혜숙·한승우[12]는 신입생 예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신입생들의 의견을 조사, 분석하였다. 신입생 예비 교육에 대한 인식조사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입학 후 6주간의 기간이 신입생들의 대학 적응과 관련이 깊다는 Tinto의 이론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해당 연구는 대학 구성원들이 모두 상생의 관계에 있으며, 미래를 함께 이끌어가는 공동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유홍준 등[13]은 국내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현황을 분석하였고, 학생과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신입생들은 운영 주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오리엔테이션 실시에 따른 기대치에 대한 만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명확한 교육목표 설정, 자발적 체험 중심의 모델 운영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강성배, 김광현[14]은 동국대 예비대학

의 운영과정, 성과분석을 수행하였고, 입학 후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신입생들은 예비대학을 통해 대학생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찾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는 대학 특성에 적합한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Table 1과 같이 대학생활 적응, 인성, 리더십, 자기계발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즉, 인문학 프로그램은 대학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기보다 예비 신입생들이 대학에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학업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P 대학 사례로 예비대학 모델을 설계할지라도 인문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비대학 프로그램은 대학들의 공통적인 프로그램으로 활용가능하고, 본 연구는 타 대학의 예비대학 구축 시 연구적 성과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Table 1. Case of Preliminary University

Case	Contents	Method
Sungkyunkwan University	- Korean Neo-Confucianism - Records of courtesy, records of elegant and polite behavior in life together - Spring and Autumn, Court of History for Ideal Society	- No credit - MOOC (Online)
Yonsei University	- Special lecture on writers - Special lecture on classic - Humanities in the global era	- No credit - Online lecture
Gangnam University	- Career exploration - Writing (reflection and expression)	- Credit - Online lecture - Mileage
Sangmyung University	- Special lecture on humanities - Imagination liberal arts course - Open your thoughts (writing, reading, and discussion)	- Credit - Online lecture
Ewha Womans University	- Digital storytelling in the era of Metabus - With AI era: What and how?	- No Credit - Online lecture

###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인문학 전문가 대상 표적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여 인문학적 사고를 증진시키기 위한 예비대학 온라인 플랫폼을 제안하는 데 있다. 또한 재학생의 설문을 통해 예비대학 요구도와 기대사항을 파악하여 인문학 플랫폼 콘텐츠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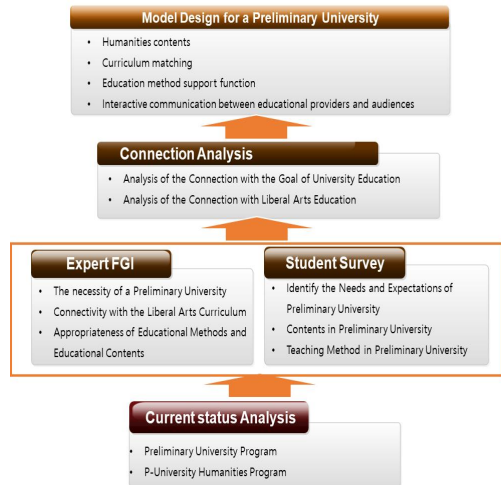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3.1 전문가 표적집단면접법(FGI)

전문가 FGI는 P 대학의 인문학 관련 교과목 강의 경험에 있거나, 인문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전문가를 선정하고, 개별 집중 면담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전문가 FGI 참여자는 전공과 교양 전임교수 8명으로 2020년 1학기, 2학기에 개설된 인문학 관련 교과목 강의를 담당하는 전임 교수들로 남성과 여성 각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중 10년 초과 교수 경력을 가진 교원은 2명, 5년~10년이 4명, 5년 미만의 교수 경력을 가진 교원은 2명이었다.

인터뷰 질문은 예비대학의 필요성, 교양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인터뷰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인터뷰 시 Guba and Lincoln이 제시한 가치(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을 고려하였다[15].

#### 3.2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

인문학 기반 예비대학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P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이공 계열 및 인문사회 계열 등 각 1개 학과에 개설된 4개 강좌의 수강생 123명을 대상으로 2021년 9월 1일 ~ 9월 10일까지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4.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인문학 관심도, 인문학 프로그램 경험, 인문학 교과 경험, 예비대학 인문학 프로그램 관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대학생의 예비대학 인문학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인문학 주제 및 교육방식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측정도구는 인문학 관심도, 인문학 프로그램 경험, 인문학 교과 경험, 예비대학 인문학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지로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조사를 위한 문항은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로 분석을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123명으로 65.9%(81명)가 남학생이며, 34.1%(42명)가 여학생이다. 응답자의 소속 대학은 35.86%가 인문사회대학이고, 53.7%가 IT공과대학으로 조사되었다. 설문 문항은 인문학에 대한 이해 및 관심, 인문학 프로그램 경험 및 만족도, 인문학 교과 수강 및 만족도, 그리고 관심 및 예비대학 필요성 및 참여의사로 구성되어 있다[16]. 문항별 신뢰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모든 문항의 Cronbach'  $\alpha$  계수 값이 0.7이상으로 나타나 문항의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Question	Reliability Coefficient
Understanding & Interest in Humanities	0.859
Experience & Satisfaction in Humanities programs.(3)	0.862
Humanities course and Satisfaction(3)	0.847
Necessity and Participation in Preliminary University(5)	0.814

## 4. 연구 결과

### 4.1 전문가 표적집단면접법(FGI)

표적집단면접법에 의한 전문가 인터뷰 질문은 첫째, 예비대학 모델의 필요성, 둘째, 예비대학과 교양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셋째, 예비대학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대학 모델의 필요성 관련 질문에서는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 모두 P 대학에 맞는 예비대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문적 기초를 다지고, 철학적

가치관을 정립시키기 위해 P 대학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플랫폼 구축을 통한 운영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예비대학과 교양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질문과 관련해서는 첫째, 예비대학 모델과 교양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대학 모델의 학점화, 장학금 마일리지 부여 및 인증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전공교수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예비대학 모델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 셋째, 전체 학과에 필요한 예비대학 모델은 철학적 가치관을 확립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예비대학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관련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 그룹의 의견은 첫째, 전통적인 방식인 대면으로 진행되는 예비대학 모델이 아닌 온라인 교육에 적합한 모델 구성이 필요하고, 둘째, 교수자 그룹의 역할 분담을 통한 팀티칭 형식의 진행이 예비대학 모델 효과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셋째, 설명식 수업방식보다 주제별 토론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넷째,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체험하는 과정을 체계화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인력(연구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문학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제의 선정 여부보다 비대면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4.2 재학생 설문조사

본 연구는 예비대학 인문학 모델에 대한 재학생의 요구도와 기대사항을 파악하여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를 구체화 하고자 한다.

Table 3은 세부 항목의 설문 결과로 인문학 이해도가 높다는 응답과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평균 2.5(4점 만점)로 나타났다. 인문학 프로그램 또는 인문학 관련 교과를 수강한 학생들의 과반수가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예비대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평균은 4점 만점의 평균 2.69, 2.62로 나타났다. 현재 P대학은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대학 인문학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개설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Table 3. Average comparison

Question	Mean	STD.
Understanding of Humanities	2.50	0.682
Interest in Humanities	2.50	0.670
Experience in Humanities	0.32	0.467
Satisfaction in Humanities	2.74	0.627
Experience taking humanities-related courses	0.41	0.493
Satisfaction in Humanities-related Courses	2.68	0.653
Necessity in Preliminary University	2.69	0.703
Participation in Preliminary University	2.62	0.672

Table 4는 예비대학 개설시 응답자가 원하는 교육내용의 빈도수이다. 응답자는 예비대학에서 자기개발, 진로설계, 인성 순으로 교육내용이 개설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ntents in Preliminary University

Contents	Frequency	%
Community spirit	5	4.1
Basic liberal arts courses	12	9.8
Personality	21	17.1
Self-improvement	55	44.7
Career design	27	22.0
P University's education goal	1	0.8
etc.	2	1.6
Total	123	100

Table 5는 예비대학에서 원하는 교육방법에 대한 설문 결과로 응답자 대부분이 설명식 강의(55%)와 PBL(53%) 교육방식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문가 인터뷰 결과와는 달리 팀 형태의 토론식 수업보다 학생들은 설명식 수업 또는 PBL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Teaching Method

Teaching Method	Frequency	%
Writing	8	6.5
PBL	53	43.1
Explanatory lecture	55	44.7
Team discussion	7	5.7
Total	123	100

### 4.3 예비대학 모델 설계

기존의 P 대학 신입생 예비대학은 희망하는 학과가 전공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여 진행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예비대학 모델은 문학·역사·철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여 5번의 인문학 수업에 참

여하도록 프로그램 구성을 제안한다.

수업을 위해 각 회차마다 문학·역사·철학 각 분야의 교수 1명씩, 총 3명이 동시에 참여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 1인과 학생들의 모둠별 토론 내용을 구성하고 진행할 2인의 교수가 팀으로 강의를 구성하고, 각 팀의 활동을 도와줄 학부생 조교를 교수 당 2~3명씩 배정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인문학적 사고를 개발하기 위한 예비대학 모델은 다음 그림과 같다. 모델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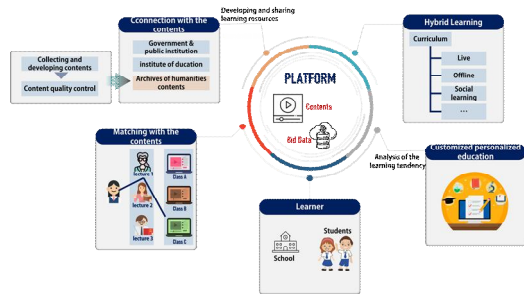


Fig. 2. Humanities-based Preliminary University Model

첫 번째, 본 모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문학 관련 콘텐츠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대학은 물론, 학생들이 개발한 콘텐츠들을 연계하여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부분이다. 두 번째, 교육자원을 매칭하는 부분으로 등록된 교육 콘텐츠와 인문학 관련 교수 풀(Pool)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구축한 후 인문학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를 매칭하는 기능으로 구성된다. 이 부분은 교육 콘텐츠 관련 데이터와 참여자의 입력 키워드, 강사 관련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참여 학생이 희망하는 콘텐츠를 추천하기 위한 부분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콘텐츠 기반 필터링(Content-based Filtering) 방법과 협업 필터링(Collaborative Filtering) 방법을 혼합한 콘텐츠 추천이 이루어지는 기능을 구현하고자 한다. 세 번째, 추천 알고리즘의 필터링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의 성향 및 취향과 콘텐츠의 품질 등을 고려한 맞춤형 개인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구현하는 부분이다. 네 번째는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제작된 아바타를 이용하여 해당 강의 소개 및 활동 등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제공자와 수용자 간의 쌍방향 소통이 역동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플랫폼은 크로스 플랫폼인 포톤서버(Photon Server)를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실감형 체험과 VR-Chatting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의 공간에서 대화로 강의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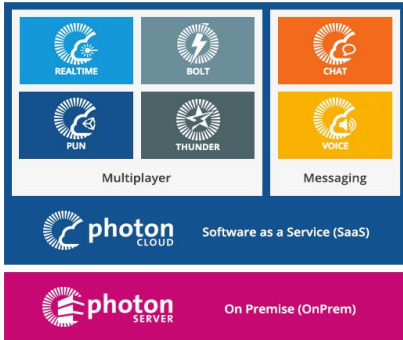


Fig. 3. Photon Server (<https://www.photonengine.com/>)

마지막으로 인문 역량지수를 개발하여 교육 플랫폼을 사용하는 수요자들에 대한 교육평가와 효과성을 점검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본 예비대학 모델의 목적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인문학에 대한 흥미와 타인과의 상호작용, 대학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의 능동적 해결 주체로서의 역량함양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이 요구하는 목적과 대학생활과의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예비대학 모델은 대학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문학 교육시스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5. 결론

대학들은 입시 위주의 수동적 교육 및 정책에 익숙해져서 대학이라는 학문의 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신입생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대학에 적응시켜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이 가지고 있는 숙제이다. 본 연구는 P 대학의 특성에 맞는 예비대학을 설계하기 위하여 전문가 인터뷰와 재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인문학적 사고에 기반한 예비대학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예비대학 모델 설계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인터뷰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에 기반한 예비대학 모델 구축 및 인문학적 사고에 기반한 인재 양성 교육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재학생 설문 결과에서는 인문학 기반의 예비대학 운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인문학 기반 예비대학 모델을 제안하였다. 향후 제안된 예비대학 모델 운영을 통해 참여 학생들이 대학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문학적 사고가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P 대학의 특성에 맞는 인문학 기반의 예비대학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신입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 및 정착을 위해 대학들이 보다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어 신입생들을 맞이하고 1학년 교양교육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둘째, 인문학 기반 예비대학 모델을 통해 예비대학 경험이 신입생들에게 대학에서의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 대학 생활에 대한 흥미 및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대학의 교양 교육과정과의 연결고리를 제공하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예비대학 모델은 예비대학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하는 기존의 예비대학 연구에 플랫폼 구축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학문간 융합이 가능하도록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과 대학 생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P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함에 따라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 다양한 예비대학 중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예비대학 모델을 제시함에 따라 전공 기초, 학사 및 교육과정 설명 등 다른 예비대학 프로그램으로 연구 내용을 확장·적용 시키는데 한계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예비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REFERENCES

- [1] H. S. Park (2020. 9. 17). I don't have friends. Depression... Online classes, satisfaction gradually decreased. *The JoongAng*.
- [2] J. E. Kim (2021. 4. 30). Four-year college 95% tuition freeze..."The satisfaction level is low, so it's inevitable to return some". *The Hankyoreh*.
- [3] W. S. Han & J. K. Kim & H. K. Lee. (2013). Effects of the Motivation Semester Program among



- University Freshmen : Focused on K-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7), 522-530.
- [4] H. S. Shin. (2010). Consideration of implications for the operation of a prospective university as a liberal arts curriculum through case analysis of a prospective university of S Women's University. *The Korean Association of General Education*, 465-487.
- [5] B. S. Hong, S. J. Yoon, E. C. Choi, S. Y. Byun, H. C. Choi, M. G. Seo, S. H. Jang & E. S. Ryu. (2011). *A Study on the Analysis and Promotion of Humanities Education Status*, Ministry of Education
- [6] S. S. Paek. (2019). The Fourth University Revolution and the Future of Liberal Art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3(3), 11-29.
- [7] J. W. Kim. (2021). Study on the Direction of Non-Face-to-Face Education in University Education in the Era of Corona 19. *The Korean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27-130.
- [8] M. Y. Kim & M. Y. Kim. (2020). An Analysis on Perception of the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Liberal Education and learning outcome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4(1), 193-218
- [9] H. J. Choo. (2012). A special program for enhancing general education for freshmen of 2-3 years communitycolleges - A case study of S health college's general education -.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6(3), 383-403.
- [10] H. S. Shin & H. J. Yun. & J. N. Yi. (2017). An Orientation Curriculum Development for University Freshmen, utilizing Problem-Based Learning. *Ratio et Oratio* 10(1), 7-49.
- [11] H. S. Shin (2017).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Liberal Arts Education to the Freshmen through the Survey Analysis on the Preliminary College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1), 365-406.
- [12] H. S. Son & S. W. Han. (2017). A Study on the Design and Operation of Preliminary Education Program for College Freshmen. *Culture and Convergence*, 39(3), 135-162.
- [13] H. J. Yoo, S. H. Jung, H. S. Jang, E. Y. Park, J. G. Shin & S. H. Kim. (2017). Current Status and Problem Analysis of Freshman Orientation in Korean Universitie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5), 33-60.
- [14] S. B. Kang & K. H. Kim. (2018).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Preliminary College Program.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2(1), 57-72.
- [15] E. H. Guba & Y. S. Lincoln. (1981).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University of Michigan : Jossey-Bass Publishers.
- [16] S. J. Park, M. S. Han, J. S. Kim, D. H. Park & K. I. Kim. (1998). A study on the Bridge Course Development for Active 2+2 Articulation Educational Program,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ducations*, 23(1), 16-28.

## 백 상 미(Sangmi Baik)

[정회원]



- 2005년 8월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11년 2월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평택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재무회계, 관리회계, 경영교육
- E-Mail : redhairsang@ptu.ac.kr

## 정 선 호(Seonho Jeong)

[정회원]



- 1992년 2월 : 전북대학교 전산학과 (이학석사)
- 2001년 2월 : 전북대학교 전산학과 (이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평택대학교 융합소프트웨어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 데이터분석
- E-Mail : shjeong@ptu.ac.kr